

미세 플라스틱이 뭐지?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도 있습니다.

쌀알 크기의 캡슐 형태를 비롯해 식품 용기 등이 바다나 해변에서 파도와 모래에 쓸려 작게 깨진 것도 있습니다.

작아서 찾기 힘들지만 북극이나 남극 등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왜 나뭇까?

1.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해수나 모래 속에서 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썩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2. 작은 동물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신체 내부에 상처를 입히거나 배가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영양 부족을 초래합니다.
3. 유해한 물질이 부착되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작은 생물은 작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작은 물고기는 더 큰 물고기나 새에게 잡아먹힙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 작은 생물이 사라지거나 유해 물질이 물고기나 새의 몸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많은 생물이 받게 될 영향이 우려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 전에 줍자!

어떻게 하면 될까?

미세 플라스틱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1.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여 쓰레기 줄이기
2. 쓰레기 분리수거를 바르게 하여 정해진 장소에 버리기
3. 지역의 쓰레기 줍기 운동에 참가하기

를 평소에 지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재활용 자원 수거 등에 협력하면 쓰레기가 줄어들어.”



우리 주변의 공원이나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나 바람에 실려 강으로 옮겨져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나 강과 바다로 이어져 있어 바다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버려진 쓰레기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모두 함께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또다시 흘러들어와 점점 쌓이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점점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의 대책

세계 각국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회사 등도 있습니다.

일본해 에서도



일본

강이나 바다의 쓰레기 줄이기 및 에코백 사용



한국

어민과 지역 회사, 시민 단체가 협력하여 쓰레기 수거



중국

농촌 등 지역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러시아

전자 지도를 사용한 불법 투기 방지 및 재활용 자원 회수



몽골

국경을 넘어 바다로 이어지는 강의 쓰레기 줄이기

등 각 나라가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930-8501 도야마현 도야마시 신소가와 1-7

도야마현 종합정책국 국제과 (TEL: 076-444-3156, FAX: 076-432-5648)

우930-0005 도야마현 도야마시 신사쿠라마치 5-3 제2도야마덴키 빌딩 8층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환경정책과 (TEL: 076-444-3141, FAX: 076-444-3480)

2019년 3월 발행